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4
1978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블
엘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앨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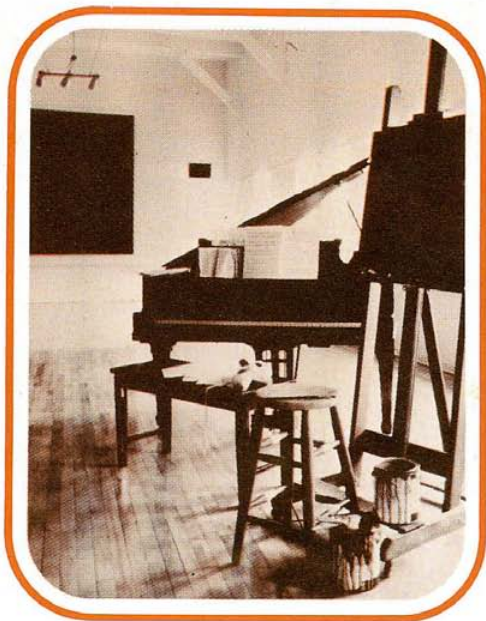
매리온 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지부와 카드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본 예술—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1
그녀가 돌봐 주었기 때문에 헬렌 제이 세일리..... 6
질의 응답..... 9
참여 : 우리 집 가정의 밤,
성공의 열쇠.....글렌 더블류 하퍼.....11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14
지역 지도자 메시지 ----- 최 옥환.....17
지역 소식.....18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19
우디와 나..... 베티 루멜.....20
담 구.....22
좋은 이웃인 석태..... 아노벨 아무어.....24
신전의 톱밥..... 거트루드 엠 리차즈.....28
지역 소식.....31
간증의 문을 열자..... 데오 이 맥킨.....34
인생의 제문제에
답을 주는 복음.....닐 에이 맥스웰 장로.....37
포로가 된 선교사.....멜빈 레비트.....41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윌리엄 지 다이어.....44
김블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축복.....표3

통 권 : 제153호, 제14권 제4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4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널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채 구라 514091
인쇄인 : 상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8년
제4권 4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주



복음의 관점에서 본 예술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오늘날에는 연극, 음악, 문학, 조각, 미술, 과학 모든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들이 혜성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교회 회원들이 이미 이룩한 훌륭한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이목이 이들에게 집중될 날을 그려 왔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께서서는 이 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남다르듯이, 시온의 모든 면에 있어서도 세상에 두드러지게 될

날이 이르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시온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영광을 듣고 와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설교, 1857년 9월 20일, 1953년 6월호 메신저지 참조)

교회에는 확실히 바그너(리차드 바그너, 1813-83)와 같은 대가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열렬한 창작력을 지닌 내일의 바그너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독일의 작곡가보다도 더 훌륭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작곡가를 배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르디(1813-1900?)의 아이다, 일트르바토레나 그의 그의 대표작을 대할 때 배후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또 다른 베르디가 있을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바하(1685-1750)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의 피아노곡이나 합창곡에는 종교적인 향취가 깃들어 있는 것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우리 세대의 형제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꿈을 이룩해야 합니다.

브리감 영은 “수학과 과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모든 업적과 기술과 모든 유용한 지식들이 성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는 사랑스럽고도 감미로운 성도들의 노래 소리에 여러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날뿐 아니라 내일의 이 진실한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성악가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보다 나은, 잘 훈련된 성악가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자연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룩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져다 주고 빛을 밝혀 주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백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축복받은 그들의 동료들로 인하여, 우리는 보다 더 능률적이고 가치 있는 조직의 기초를 놓게 될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예술가에게 그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 어느 작품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이 다음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완전함을 추구하고 결코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보다 뛰어나 수 있습니다. 작곡이나 연주에 있어서, 헨델의 메시야보다 더 훌륭한 오라토리오를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것이 아직 작곡되지도 않았고 연주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훌륭한 작품의 소재로 니파이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우리 예술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갖고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이 땅에 우리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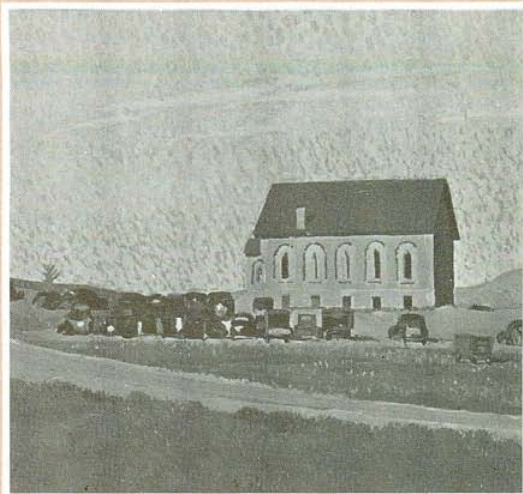
헨델이나 그 밖의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떠한 작곡가도 이 위대한 사실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음악적인 능력과 기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리, 계시 등을 완전히 이해하고, 영감받은 말일성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영광 중에 오시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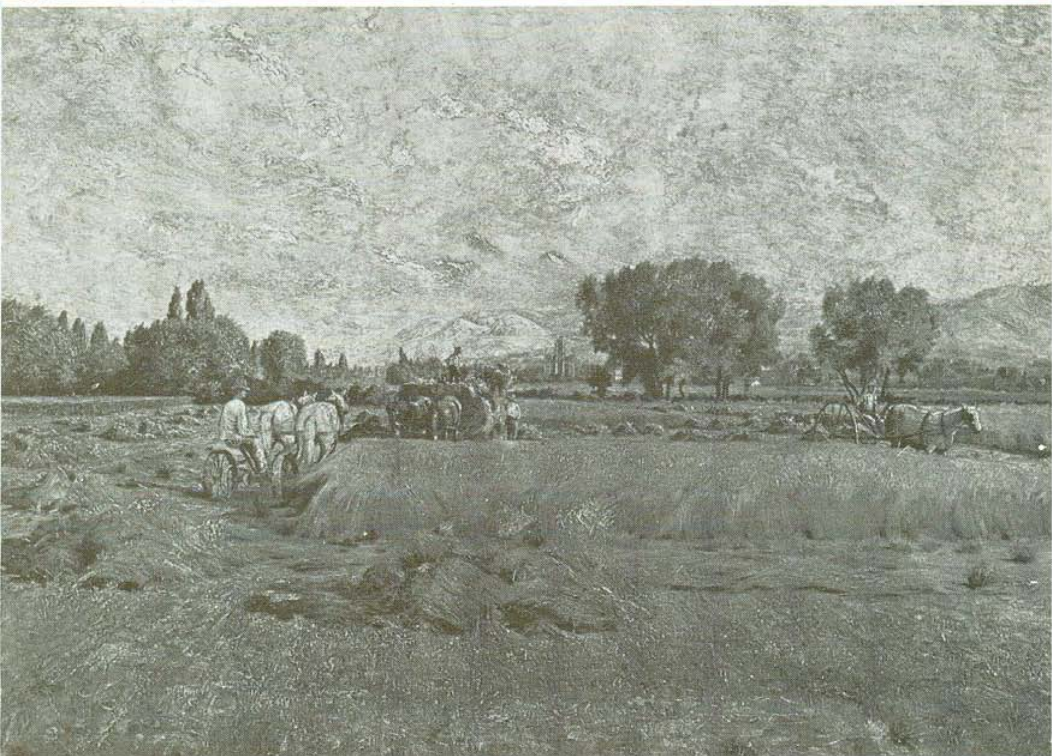
가을 든 여인,
: 만들기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례식



지와 아들의 모습이나 교리와 신권 열쇠의 회복 등을 음악이나 언어로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까?

에이테의 극작가요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 (1856 - 1950)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에 대해 ‘왜 하필 나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는 ‘왜 안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꿈꾸고 ‘왜 안돼?’라고 되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탈리아가 배출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니콜로 파가니니 (1782 - 1840)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현대의 많은 파가니니를 또는 다른 훌륭한 예술가들을 발견해 내고 훈련시켜 배출해 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빼어난 연주력이나 표현의 심오함에서, 고상하고 숭고한 감정에서, 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며 동시에 작곡가였던 리스트 (1811 - 1886)를 능가할 피아니스트를 배출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피아노에 있어서 여러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나는 폴란드의 정치가며, 작곡가요, 동시에 피아니스트였던 페데레프스키 (1860 - 1941)보다 더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간구합니다. 확실히 모든 페데레프스키가 지난 세기에 폴란드에서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창조적인 독창성과 날카로운 관찰력, 낭만적인 표현력 등 모든 재능은 단지 그 한 몸과 두 손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가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다른 미켈란젤로가 태어날 수 없습니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플로렌스의 다윗상이나 로마의 모세상은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재능이 그 시대에 다 사라졌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부도덕과 무절제에의 악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영혼을 지닌 살아 있는 인재를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훌륭한 예술가 중에는 성격 장애자이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고 칭송받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만일 순결하고 악을 멀리하며, 영감받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재능이 주어졌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셰익스피어 (1564 - 1616)를 인용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그는 많은 훌륭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의 햄릿이나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등은 위대한 그의 작품의 서장에 불과합니다. 그의 예술에서와 같이 그렇게 다재다능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한 사람의 셰익스피어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셰익스피어는 없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많은 훌륭한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했던 것처럼 “왜 안돼?”라고 되물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열심히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동자가 아닌 훌륭한 정치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팔죽 한 접시에 장자 상숙권을 팔

아 버리는 약골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참신한 젊은이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르치고, 인간에 대하여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게 완전하게 일을 수행하는 방법과 정직과 영적인 바탕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누군가가 음악, 미술, 조각, 소설 등에서 회복된 교회나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왕국 건설, 투쟁과 절망, 배도와 종교 개혁, 서부로의 대이동, 이주와 박해의 시기, “살아계신 하나님 본 큰 기쁨이 넘쳤네”라고 찬송가 127장에서 노래하는 요셉 스미스나, 위대한 이주자였으며 개혁자였던 브리감 영 등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표현해 주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초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술적인 유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본이즘의 훌륭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전혀 씌어지거나 그려지거나 조각되어지거나 말하여지지 않았읍니다. 이 일은 영적으로 충만한 마음과 잘 훈련된 재능의 주인공이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 이야기의 진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신앙이 훌륭하고 영감받은 활동적인 교회 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훌륭한 예술가에 의하여 씌어지고, 훌륭한 비평가에 의하여 정선된 그러한 대작들은 모든 극장에서 몇 달 동안 상연될 것이고, 모든 방언의 사람들에게 전하여져 이 지구의 모든 부분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극작가와 우리의 영화 제작 전문가들은 하늘에서 오는 영감을 받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불후의 대작을

창조해 내야 합니다. 재능이 있는 우리 회원들이 그 큰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몰두한다면, 그러한 이야기에 생명과 맥박, 감정, 사랑, 비애, 고통, 공포, 용기 등 극적 효과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이야기에 이집트에서 여리고까지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인도해 내고, 호렘에서 바위를 깨어 물을 나오게 하고, 사막에서 만나와 커다란 포도나무를 내려 주고, 필요할 때 비를 내리게 하며, 커다란 적을 대적하여 승리로 이끄는 기적보다 더 훌륭한 기적을 베풀어 낸 현대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그려 낼 수 있습니다.

니고메모를 취하여 그에게 요셉 스미스의 영을 불어넣어 봅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셰익스피어 등을 취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개인적인 계시로 그를 정화했다고 합시다. 그런 뒤 그들이 조각해 낸 동상과 그들이 그려 낸 벽화와 그들이 써낸 작품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헨델을 취하여 그의 노력과 그의 뛰어난 재능과 이야기를 올바르게 묘사하려는 그의 정직한 욕망에, 진실한 모든 이야기와 계시를 불어넣어 준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뛰어난 소질과 성품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무관심이 우리의 일에 들어오게 되어 우리의 일은 보잘 것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참다운 솜씨는 그 기술에 관계없이 참다운 관심을 반영하며 참다운 관심은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



그녀가 돌봐 주었기 때문에

헬렌 제이 세일리

우리는 매우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나는 하와이 복장인 허름한 무릎 입고 있었고, 나의 목에는 그때 까지도 시들어 버린 메이가 걸려 있었다. 세 아이들은 매우 지쳐서 초점을 잃은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다. 만아가가 겨우 다섯 살이었다. 시간은 오전 2시 30분이었다. 거대한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거의 텅비어 있었다. 나는 완전히 버려진 느낌을 받았었고, 너무나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안내소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시내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나에게 마지막 버스가 지금 막 떠나려고 하고 있으므로 조금 서두른다면 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는 나의 짐을 들어다 주었고 막 떠나려 하는 버스를 세워 주었다.

그 버스의 종점인 정거장은 캄캄했고 이미 문은 닫혀 있었다. 버스에 탔던 다른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비개의 손가락과 두 개의 조그만 트렁크와 나와 세 아이만 남게 되었다.

나는 버스 관리 사무소로부터 어떤 관리인이 문을 잠그고는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전화 걸 장소나 혹은 근처에 조그마한 호텔이 없는지를 물어 보았다. 다행스럽게

도, 그는 여섯 블록쯤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맣고 깨끗한 호텔을 알려 주었고, 나의 짐을 호텔까지 나를 수 있도록 조그마한 손수레를 빌려 주었다. 4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울 수가 있었고 곧 깊은 잠에 빠져 버렸다.

그후 이를 동안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휴식을 취하면서 보냈다.

우리는 하와이에서 남편과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였던 시아버지와 함께 이 년 동안 살았다. 그러나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잠 20 : 30)라는 말씀을 남편이 신봉하여 항상 아이들을 심하게 때려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벌이 더 가혹해짐에 따라 나는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증서부에 살고 계시긴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갈 수는 없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최근에 아주 큰 뇌일혈을 일으키셔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근처에 아

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므로 내 인생에서 이때처럼 외로움을 느끼기는 처음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내 머리 속엔 없었다.

세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 나는 내가 이전에 속했던 교회의 세 명의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회원입니까?” 나는 정직하게 나는 현재 매우 피롭고 혼란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세牧사는 그들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나의 슬픔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고, 어디에나 나의 처지를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내가 하와이를 떠날 때, 몇몇 친구들이 전송을 나왔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물론 교회의 비활동 회원이었는데, 그는 잘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교회에 연락해, 그들은 분명히 도와 줄거야.”

나는 물론 교회가 훌륭한 태버나클 합창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내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밖에는 없다고 느꼈다. 전화 번호부를 뒤져서 물론 교회의 주소를 찾았다. 그중에 선교 본부라고 되어 있는 곳의 번호를 골라 내었다. 선교 본부는 아무래도 더 자비로울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전에 세 명의 목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 즉 나는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아

직 이 구역을 잘 알지 못하므로 자기가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그에게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하겠노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다시 연락이 올까 반신반의하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어느 다정스런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모든 짐을 꾸리고 택시를 타고 삼십 분 내에 버클리 버스 종점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차 모양과 그녀가 입을 옷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는 “그런데, 혹시 교회의 회원이신가요?”라고 물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여기서도 또 그런 것을 묻는구나”고 생각하고는 수화기에 대고 “아니요, 나는 회원이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고는 “그냥 여쭙어 보았을 뿐이에요, 삼십 분 후에 뵙도록 하죠.”라고 말했다.

나는 급히 짐을 꾸리고 난 후에 아이들을 셋기고는, 호텔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곧바로 버클리로 향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 나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그녀를 보고 매우 놀랐고, 다소 미심쩍기도 했으나, 나는 그녀가 제공하는 것을 모두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가 베푼 첫번째 친절은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가 그 지역의 스테이크 부장인 오 레슬리 스톤이라는 사람의 부인임을 곧 알게 되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하숙집을 마련해 주었고, 아이를 돌볼 사람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에게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매우 강한 저항감을 갖고 있으며, 그런 나의 생각을 쉽사리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에게 이런 모든 호의를 베풀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떠한 적대감도 보이지 않았고 나를 개종시키려 하지도 않았으며 더우기 나를 비난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에게 큰 은혜나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다.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하나 나의 마음 속에 떠올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 35)

그후 며칠 동안 그녀는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정말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자매를 아이를 돌보도록 보내 주었다. 또한 그녀는 우리 가족에 적합한 잘 꾸며진 아파트를 소개해 주었고, 임시직을 구하도록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아직도 그녀는 나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점차 이 점에 대해 놀라게 되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성구가 맴돌고 있었다.

그때쯤 해서 나는 아파트에서 제임스 이 탈매지라는 사람이 쓴 “신앙개조”란 물론 교회의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나는 스톤 자매가 몰래 그것을 일부러 거기에 놓아 두었는지, 아니면 먼저 세들과 있던 사람이 두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픈 밤에 아이들이 다 잠들고 난 후부터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큰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것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 주 동안, 스톤 자매는 매주 토요일이 되면 꼭 나에게 들려서는, 일요일에 같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정중히 거절을 했고, 그러면 그녀 역시 더 이상 그 문제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정규적으로 내게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그 책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 왔었지만,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훌륭한 것들을 들어 보지 못했었다. 내가 과거에 읽은 많은 것이 내가 지금 읽는 것과는 상이한 것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대할 때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스톤 자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교회에 같이 갈 수는 없지만, 나는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으니 그 문제에 관하

여 같이 이야기할 목사를 보내줄 수 없겠느냐고 말하였다.

며칠 후에 나는 마빈 테너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자기들은 스테이크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나의 질문들을 들어 보겠노라고 했다. 거의 도전적으로 나는 그들에게 일곱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을 하였고, 만일 그들이 나의 질문에 답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가르치려 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테너 형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너 부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나는 마침내 그들이 가르쳐 준 것들의 진실성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그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는 데 동의했다. 얼마 후 나는 칠펜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고 난 후, 나는 새로운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재혼을 했고, 또 다른 자녀를 더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나는 지금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여 아이들이 성찬을 나르고 성찬을 축복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나는 아이들이 모두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있음을 본다. 나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나는 또한 계보 사업을 통하여 머리 칠펜과 엔다우먼트를 받고 영원한 인봉을 받은 나의 조상들을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나는 훌륭한 스톤 부인과 그녀의 가족과 아직도 어디에선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을 사랑스러운 테너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는 또한 아주 오래 전에 그렇게도 다루기 힘든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바쳐 준 그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다음의 성구가 내 마음속에 크고 명백하게 울려 오고 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 : 37)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라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에이치 딘 가렛

아리조나주 홀브룩시
홀브룩 신학 연구원 책임자.

내가 아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온 사람이 교회의 역원으로 지지를 받게 될 때 지지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까? 만일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1830년 7월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간절한 기도와 굳은 신앙으로써 교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수행되어야 하나니, 이는 너희가 신앙으로써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할 것

임이니라.”(교성 26 : 2)

1830년 4월에 주어진 교회 행정과 조직에 관한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교회에서 정식으로 조직된 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 회원의 거수 지지 없이는 어떠한 직책에도 성임될 자가 없느니라.”(교성 20 : 65)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이 계시에 내포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원들의 지지 없이는 교회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역원의 직책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거수 지지할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회원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이 교회의 말일성도 중 아무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원을 선택하고 지명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권 지도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구원의 교리, 북크래프트사, 1956년, 3 : 123)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역원에 대한 지지를 물을 때 반대하는 표시를 할 경우에 매우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것은 결코 어떠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 때문에 그가 이 교회의 어떤 직책에 지명되었을 경우 그를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 손을 들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행한 악행에 근거하여, 그가 범한 교회의 율법 때문에 그가 부름받은 직책에 합당하지 못할 경우에

만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구원의 교리, 3:124)

마음속으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만일 그가 반대하는 뜻을 표시한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관리 역원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리 역원으로 하여금 이 반대가 타당한 것인지, 부름받은 사람이 그 직에 합당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합당치 못하다면, 부름받은 사람은 그 직에 부름받아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적절한 상황에서는 교회에서 봉사할 역원을 부를 때 영감을 주시고, 관리 역원이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름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반대하는 표시를 할 경우, 사전에 진지하게 간구하는 자세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 역원의 행동이 주님의 계획과 권고에 일치한 것인지를 영감과 계시에 의하여 스스로 알아보는 것은 모든 교회 회원의 권리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회의 어떤 직책에 부름받은 사람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회의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형제는 한때 이 점에 관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 워드 교사 관리자로서, 그는 워드의 어떤 교사에게 그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자는 그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교사 대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찬식에서 나의 친구는 바로 그 형제를 감독단

의 일원으로서 지지해야 했습니다. 나의 친구는 워드 교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훌륭한 감독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 형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를 알기 위해 무척 고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지지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몇 달 후에 나태하던 그 교사는 감독단으로서 그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독단의 일원으로서, 후에 감독으로서, 고등 평의원으로서 마침내는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서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어떤 직책에 부름받은 어느 형제에 대한 지지의 표시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지의 표시를 할 때, 주님과 여러분이 지지하는, 즉 여러분의 모든 충성을 다 바치며, 부유나 조건없이 그를 지지하겠다는 신성한 성약을 맺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0년 4월 103페이지)

만장일치의 법의 실행은 교회의 회원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그것과 일치되게 해줍니다. 찰스 더블류 펜로우즈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이 하나가 될 때,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설교집, 21:45)

*

참여 : 우리집 가정의 밤 성공의 열쇠

글렌 더블류 하퍼



한 주일의 핵심이 되는 월요일 밤, 다시 말해서 저녁 식사 후부터 부모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집 가정의 밤은 정말 즐거운 밤입니다. 단순히 교재만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녁을 가족 활동의 구심점을 이루는 활동의 밤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가정의 밤 처음 순서는 가족 회의입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가장인 나의 사회로 가사를 의논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이 모임은 뜻깊고 진지한 모임이 됩니다. 이 시간에 가족 전체에게 알릴 중요한 사항이나 한 주일 동안 자녀들이 달성한 일을 칭찬하고 토론합니다. 또 이 시간에 장기적인 계획, 예를 들면 수주일 후에 있을 여행이라든가, 가사나 토요일에 있을 소풍 등 비교적 사소한 계획 전반에 대해 토론합니다.

가정의 밤 두 번째의 순서는 공과 시간입니다. 어린 아기는 물론 가족이 모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공과를 배우고, 어떤 아이들은 공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와 아내는 편지를 쓴다든지 계보 사업에 관한 일을 한다든지 하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참여할 수 없는 집안 일 등을 계획합니다. 비록 짧기는 하지만 어른들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순서로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집안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공과를 준비한다든가 다과를 나른다든가 찬송을 인도한다든가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 아내와 나는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성인들의 토론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성장한 후에 자연스럽게 성

인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내다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긴 공과 시간이 지겨워 몸을 움직이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활동을 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개회 찬송, 개회 기도, 공과, 폐회 기도, 다과, 게임과 활동 등 여섯 가지 임무를 돌아가며 지명하기로 도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커서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좀 더 많은 활동에 관한 제언이 도표에 첨가될 것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발표하도록 마련된 강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거기서 공과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며, 음악 지도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그곳에 서길 좋아했으나 거기에 선다는 것은 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맡은 일을 훌륭히 해내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공과나 다과뿐만 아니라 모든 순서를 은밀히 준비하여 아주 놀랄만 하게 발표하는 걸 좋아합니다.

종종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유년 주일학교에서 최근에 배운 노래를 개회 찬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익힐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막내까지도 함께 따라 부릅니다.

우리는 공과를 준비할 때 가정의 밤 교재를 사용합니다. 다른 잡지나 책을 읽고 참고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과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운 공과를 복습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두 살 정도가 되면 공과를 가르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거의 대부분을 도와 주게 됩니다. 마흔네 살 정도가 되면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혼자 공과를 가르칠 수 있게 됩니

다.

물론 두 살에서 네 살 정도의 아이들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 처음에는 아주 주의깊게 공과를 읽어 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공과를 가르치도록 지명받은 아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명받은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승낙한다면 공과 준비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이가 보조 자료를 모으는 일을 도와 줍니다.

아이들에게 공과의 요점을 알리기 위해 간단한 그림들을 이용합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가르칠 때 기억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일례로 의문 부호(?)는 이미 배운 공과에 대해 질문을 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펼쳐진 책의 그림은 이야기를 들려 주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부호들은 점점 복잡한 뜻을 지니게 됩니다.

자연히 이렇게 하려면 15분 정도의 공과를 준비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 과정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의 밤을 반기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므로 월요일 저녁 가정의 밤을 잊고 지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 놀랍게도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두세 번만 들으면 적어도 요점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놀랄만치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운 바에 확

신을 갖고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찾아 냅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과의 요점만을 들고서 공과를 진행할 때 부모들이 뒤에서 알려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어린 아이가 부호의 의미를 잊었을 때 우리는 단지 그들이 공부한 것이 기억나도록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에 의존하는 습관을 붙이게 될 때 정말 혼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가정의 밤을 이끌어 가는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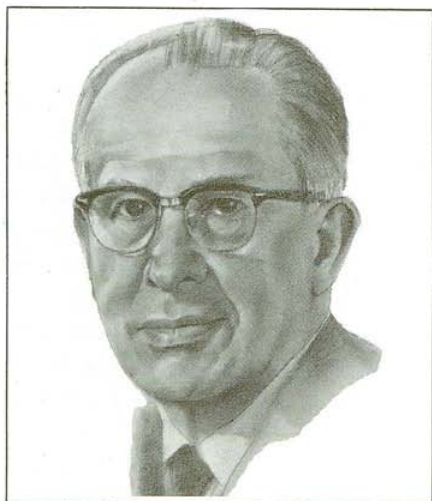
비록 필요한 만큼의 도움은 제공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와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배처럼 훌륭하게 공과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의 밤 순서인 찬송, 다과, 그리고 기도, 게임 등이 오래지 않아 마치 성인들이 이끌어 가는 것과 같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집 가정의 밤의 매력은 아이들이 가정의 밤의 순서를 맡아 참여하고 정말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를 좋아하고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의 밤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내도 가정의 밤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집 가정의 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즐거운 밤입니다. *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머리에 떠오르는 교리와 성약의 한 구절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
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지리니 참으로 백 배 이상 더해지리
라.”(교리와 성약 78 : 19)

나는 위의 성구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사

람의 말을 이전에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59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의미 심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라.”(교리와 성약 59 : 7-8)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 지어다.”(교리와 성약 59 : 9)

안식일에 대해 이와 같이 규정지어 말씀하신 주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감사와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 일을 하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를 기어 오르는 것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리라.

“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곡간이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포도원 그 어느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풀이나 좋은 것은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고 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

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고리와 성약 59:15-21)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일성도로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의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중한 죄로 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으로써 주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더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주님께 더욱더 자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도 요셉 스미스가 한 것처럼, 말일성도로서 짓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죄의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감사를 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일성도로서 받는 많은 축복을 우리는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 어느 날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세에 3천만 달러를 벌어서 천만장자가 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뉴욕에서 나한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솔트레이크시티 교외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복무 중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다른 많은 젊은이들처럼 해의 출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갑자기 끝나자 많은 젊은이들은 그 부대에서 대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

하고 있는 그 젊은이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걱정하여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슨 장로님,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 애를 좀 격려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이지요, 기꺼이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나는 그의 아들에게 전화로 사무실에 잠깐 들려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조금 늦어서 내가 집으로 막 떠나려 할 때에야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함께 가서서 저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시다. 아내는 당신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기쁘게 맞이할 겁니다.” 그러자 그는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지 못 했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기도를 하고, 피아노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방문을 마친 후, 나는 그를 자동차로 버스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젊은이를 구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그의 아들이 그에게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그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아들에게 사 줄 수 있으며, 그래도 결코 돈이 아깝지 않는 천만장자가 있었지만, 그는 가정에서의 헌신과 기도하는 간단한 일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진실로 강한 자가 지닌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일상 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좀 더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또한 불만을 품고 남을 시기하는 것도 매우 쉬운 일입니다.

내가 아이다호 대학교를 돌아보기 위해 여행하는 동안 어떤 자그마한 시골 와드에서 배운 교훈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8년간 그 훌륭한 주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습니다.

나는 그 주에 속해 있는 읍이나 마을 중 다너보지 않은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두 주일 동안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오면, 나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에, 스테이크 역원으로서 다시 스테이크 집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내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안 하면 모임에 가시는군요.” 이렇게 내가 모임에 다시 나가려 할 때에 어린 내 딸아이 하나가 문에서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또 오세요.”

나는 떨어져 있는 가족이 그리워지곤 하였습니다. 내가 아이다호주의 포카텔로에 있을 때도 특별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생각이 나서 “자 곧장 휘트니로 달려가자. 그리고 성찬식에 참석하여 거기서 훌륭한 분들과의 우정을 새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몰고 갔고,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집회가 막 시작되려 했고, 감독님이 교회로 들어가시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함께 들어가자고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단상으로 올라가서 10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앉아서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좌관을 문 옆에 앉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들과 아

버지와 어머니로 구성된 가족들이었고, 나는 그들에 관하여 거의 다 알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나는 모든 부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회는 시작되었고, 감독단 보좌가 사회하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짧은 말씀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앉아 있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보좌는 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벤슨 형제님과 같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벤슨 형제님은 시간 줄곧 이 넓은 아이다호주를 여행하셨고, 늘 순회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축복보다도 다른 사람의 축복을 더 큰 것이라고 여기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구나.”

나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축복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고 있는 돼지가 그 사과가 어디서 생겼는지 결코 알아보려고 쳐다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디서 받았는지 알려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도록 도와 주시며 결코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 지리니 참으로 백 배 이상 더해지리라.”(교리와 성약 78 : 19) *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 11~19)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 가시다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여 가족과 친지로부터 쫓겨난 문둥병 환자 열 명을 만났습니다.

그곳 마을 사람들도 나병은 닿기만 해도 병이 옮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하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병 때문에 매우 천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시고 민망하게 여기시어 고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즉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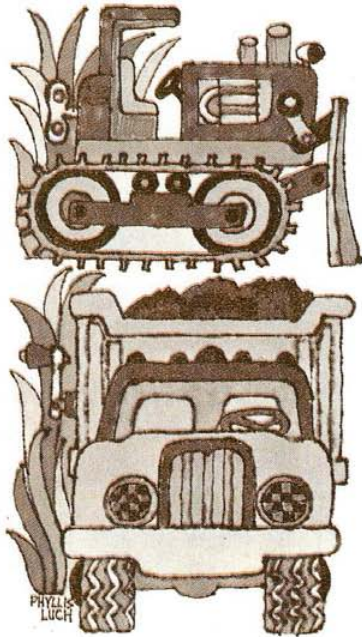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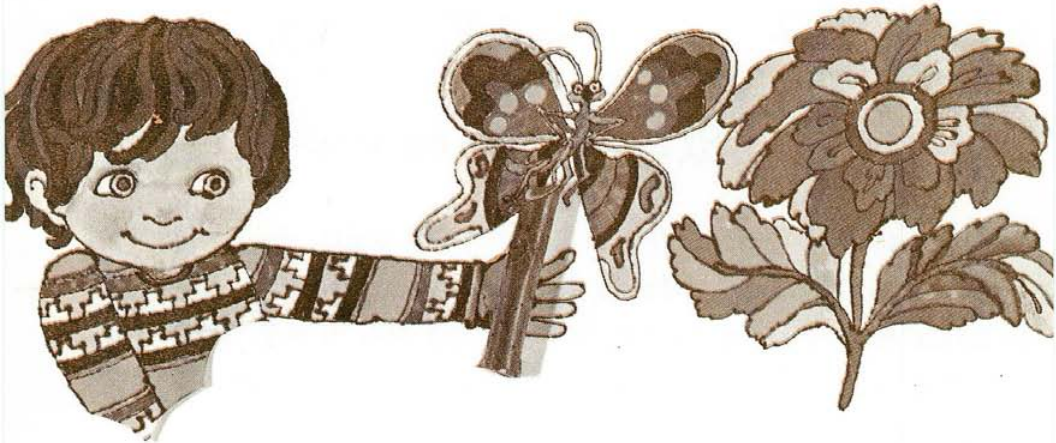
그 중 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리어 절하며 병을 낫게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깨끗함을 입은 열 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축복과 감사를 아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우디와 나

베틀 루 멜



내 방에는 장난감 상자가 한 개 있습니다. 나는 그 상자 속에 집짓기 나무와 게임 도구를 넣어 둡니다. 한 쪽 구석에는 막대기를 가득 넣어 둔 상자가 있는데 나는 그 막대기들을 갖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거칠거칠한 것도 있고 매끈매끈한 것도 있으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구멍을 파는 데는 막대기가 제일 좋습니다. 또 막대기는 아주 멀리까지도 던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막대기를 나는 “우디”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 갈 때라도 나는 우디를 꼭 갖고 다녔습니다. 우디는 작아서 내 호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었고 매끈하고 길이 잘 들었습니다. 밤에는 우디를 베개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우디는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우디가 내 호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엄마가 역정이 나서 “어떡하다 호주머니에 구멍을 뚫었어?”하고 물으셨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나는 엄마한테 우디가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 또 그 막대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구나?” 나는 풀려져 있는 구두 끈만을 잠자코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를 말아야!” 엄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넌 그걸 갖고 다니는 거야?” “엄마, 우디는 제 친구예요.” 그러자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친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엄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디에게도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는 내 주머니에 구멍을 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디는 울지도 않고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우디를 공중으로 날게 해 주었습니다. 우디는 날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는 예쁜 꽃이 피어있는 풀을 보았는데 그 위에 나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비는 내가 가만히 쥐고 있는 우디에게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 위에도 앉았습니다. 나비 다리의 감촉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나비가 멀리 날아가 버리자 우디와 나는 그 풀을 파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으로 갖고 와, 차고 옆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쁜는지 엄마가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엄마, 내 주머니에 구멍을 내서 미안

해요, 제 잘못이에요.”라고 나는 내 잘못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나를 꼭 껴안아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어느 날 사촌 제프가 놀러왔습니다. 우리는 뒷쪽 현관 아래에서 놀았습니다. 제프는 조그만 덤프 트럭을 갖고 있고 나는 태엽을 감아서 움직이게 하는 트랙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빈 곡물 상자 한 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프가 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난 호주머니에서 우디를 꺼내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디는 멋진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더 길다랗게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돌맹이에 부딪히면서 우디가 똑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나는 부러진 조각을 집어서 맞춰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막 울고 싶었지만 곁에 제프가 있어서 참았습니다. 제프는 “그까짓 막대기를 가지고 뭘 그러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러진 우디의 조각을 현관 계단 아래에 놓아두고 놀이를 계속했습니다. 제프가 집에 가고 나서 나는 현관 아래로 기어가 그 조각들을 집었습니다.

“우디야, 미안해” 라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우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디를 곡물 상자에 넣어서 우디와 내가 꽃을 심었던 그 자리로 갖고가 그곳에 구멍이를 뚫었습니다. 우디를 그 구멍이에 넣고 흙으로 묻어 주었습니다.

우디는 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는 우디를 아직 못 잊어하고 있습니다.

*



탐구

공기의 팽창

쫓물 몇 방울로 양초를 턱이 높고 넓은 접시 위에 단단히 붙인다. 그 다음 접시 바닥에 물을 조금 채운 후에 빈 병을 켜 놓은 초 위로 뒤집어 씌운다. 이때 접시 바닥에 병 입구가 완전히 밀착하지 않도록 동전 몇 개를 놓아 틈이 생기게 한다. 몇 분 후 초는 꺼지고 뒤집어 씌어 놓은 병 속으로 물이 빨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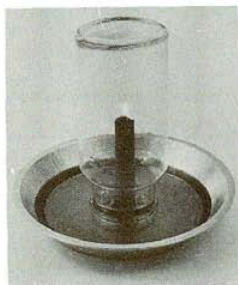
올라 간 것을 볼 수 있다. 초가 타서 공기가 데워지고 따라서 공기가 팽창하기

실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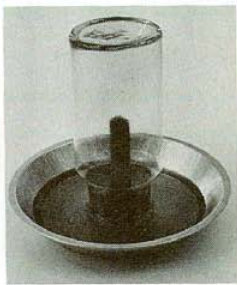


또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자. 우선 턱이 높고 넓은 접시에 물을 담아 놓고 목이 좁은 병을 거꾸로 세운다. 병 속의 공기가 데워질 수 있도록 병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면 약간의 기포가 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손을 떼고 한참 두면 병 속으로 물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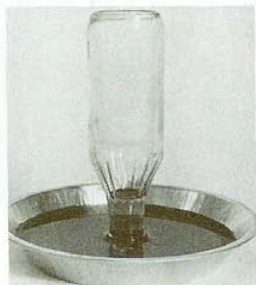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 병 속에 들어 있는 산소가 다 소모되고 나면 촛불은 꺼진다. 또 병속의 공기는 병과 접시 바닥의 물에 열을 빼앗김으로 해서 냉각이 된다. 냉각된 공기는 병안의 공간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수축이 된다. 그러면 병 속의 압력은 병 밖의 압력보다 낮아져서 병 안과 병 밖의 압력차 때문에 접시 바닥의 물은 병 안으로 올라 오게 된다. 공기의 1/5 정도가 산소이므로 소비될 산소의 양만큼 물이 병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소가 소비될과 동시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며 이러한 가스는 산소 소비에서 생긴 공간을 채우게 된다.



촛불이 병속의 공기를 가열할 때 병 둘레의 물속으로 공기 방울이 빠져나오게 될까?



만약 크기가 다른 세개의 병으로 이 실험을 했을 때 병속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서로 같겠는가?



만약 우주인이 궤도 비행을 하는 중에 압정 위에 앉으려고 할 때 무게 없는 압정은 무게 없는 우주인에게 붙어있지 못한다.

크기도, 무게도, 두께도 없는데 아주 정확히 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킬로그램



좋은 이웃인 석태

아노벨 아무어 글
딕 브라운 그림



모 판은 석태가 덮고 자는 누비

이불 크기보다도 결코 더 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중요한 모판이었습니다. 석태는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소매도 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를 한줌 집어서는 물 속 진흙 논 바닥에 심었습니다.

석태는 북치는 사람처럼 흥에 겨워 빨리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악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석태는 일을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골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야, 농악이다. 농악이야!” 하고 소리치며 그는 모판을 뛰어나갔습니다.

꼬불꼬불한 논둑길을 따라 한참 가다가 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진흙으로 엉망이었고 아직 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길바닥에 얼룩덜룩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하고 소리치며 석태는 그 오색의 찬란한 농악대 뒤에 끼어 들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농악대를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쏘다녔는지 이루 생각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

니다.

석태가 다시 모판을 생각했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해서 걸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꾸중하실 거야.” 하고 걱정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을 데리고 뒷마루에 나와 계셨습니다. “벗모의 약한 뿌리가 햇빛에 다 말라 버렸단다. 이제 더 이상 모를 낼 수가 없구나.” 하시며 침통해 하셨습니다. “우린 대부분의 양식을 그 작은 논바닥에 매달리고 있지 않니? 애야, 난 너에게 그걸 맡겼지. 그런데...” 어머니는 비통한 눈길로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석태는 자신이 펍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석태를 그렇게도 믿었는데 그는 어머니를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석태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릴 도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멍하니 뒷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라빠진 모들을 가

서 불 엄두가 나질 않았읍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대문 앞에 와 섰을 때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읍니다. 석태는 가끔 그 아주머니의 힘든 일을 거들어 주곤 했었읍니다. 석태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통해 하고 있었읍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석태야, 난 네가 이번에 우리 집 모를 좀 내 줬으면 한단다. 작년에 일을 거들던 아이가 올해에는 올 수가 없다고 하는구나. 네게 품삯은 주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석태는 꽤히 승락하고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읍니다. “이젠 우리 집 논에 심을 모를 내가 좀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어머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 하고 생각 하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도 석태네 눈처럼 별로 크지는 않았읍니다. 석태는 모집을 지고 논으로 나갔읍니다. 그리고는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모를 심었읍니다.

드디어 일을 끝내고 일어서며, 석태는 자기가 심을 모들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읍니다. 아주머니 댁에 돌아와서 “모를 좀처럼 심

었는데도 아직도 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응, 그래? 그럼, 그 남은 모는 네가 가지렴, 그런데 그냥 오래 놔 두면 뿌리가 말라서 심지 못하게 되니까, 빨리 갖다 심으렴.”하셨습니다.

석태는 정말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머니는 돈을 꺼내어 “자, 여기 내가 약속한 품삯이 있다. 받으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돈도 받고 모도 받을 수는 없어요.”하고 머뭇거리며 석태가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아냐, 난 네게 남은 모와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하시며 돈을 기어코 석태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석태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전 농악대를 따라다니다가 우리 집 모가 다 말라 심지 못하게 되는 것도 몰랐어요. 전 아주머니가 주시는 돈으로 모를 사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주머니가 모를 주셨으니까요. 이젠 내게 돈이 필요없어요.”하며 돈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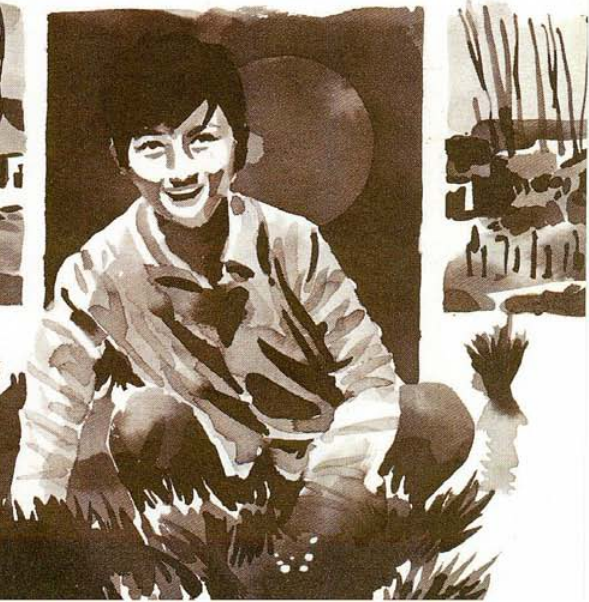
아주머니는 그 돈을 지갑에 넣으
시며 펴 대견해 하셨습니다. “넌,
어디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
니?”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석태는 활짝 웃으며 자랑스
럽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거든요.”

아주머니는 “그래, 초등학교에서
너희에게 뭘 가르치는지 알고 싶구
나. 내게 말해 주겠니?”하고 물으
셨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초등학
회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 해드릴게

요.”하고 석태는 약속했습니다.

석태는 남은 모를 가지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머니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
기할 때 들으시고 아마 흥미를 갖
게 되실 거야. 그리고 후엔 선교사
님들이 방문해서 공부도 가르칠 수
있게 될 거야.” 석태는 이웃 아주
머니에 대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
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
이 흐뭇했습니다. *



로 지야, 헬만하고 같이 아버지께 저녁 진지 갖다 드려라.” 하시며 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곧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그릇에 담고 식지 않도록 뚜껑을 덮은 뒤 큰 보자기에 싸서 바구니에 조심스레 담으셨습니다. “주의해서 들고 가져라. 가다가 놀지 말고, 아버지께서 식사를 끝내시면 빨리 돌아와야 된다.”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께서 석공으로 일하시는 솔트레이크 템플 블록

까지는 열 구간이나 되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녁을 드시는 동안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니다. 계곡의 채석장으로부터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나오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본다는 것은 정말 흥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짐이 부러지는 동안 황소는 꼬리를 휘휘 돌려 물려드는 파리를 쫓으며 끈기있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잘라지고 바라는 대로 모양이나 크기가 잘 다듬어지면 톱니같이 날카로운

신전의 톱밥

거트루드 엠 리차즈



모서리가 있는 채 나란히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개로 덮어 세워 놓습니다. 우린 맨발로 나란히 놓인 이 돌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신발은 학교 갈 때와 주일학교에 갈 때를 위해서 아껴 뒀야 했으니깐요.

가끔 우리는 숙련공들이 돌에 해, 달 그리고 별의 모양을 새겨 넣는 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왼손엔 석로 된 조그마한 정을, 바른손엔 커다란 나무망치를 들고, 너무 많은 돌이 깨져 나와 망쳐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전 각 모퉁이마다 계단이 하나씩 있는데 그 계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단이 다 완성되어 오늘은 올라가도 좋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이니깐 아주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헬만의 손을 잡고 그 커다란 돌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갔는데 몹시 숨이 찼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가 더 쉬웠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께서 나무를 다듬는 목공실로 우리를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목공실 바닥에는 깨끗한 툽밥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바늘꽃이를 만드는 법을 시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툽밥을 좀 가져가도 좋다고 그곳의 책임자가 허락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전의 툽밥으로 만든 바늘꽃이를 갖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구니에 깨끗한 툽밥을 가득 채워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바늘꽃이 만드는 것을 도와 주실 틈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옆집에 사는 “영” 자매의 옷을 세탁해서 다려 놓아야 했고 또 아기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난 아기를 흔들어 재우고는 어머니께서 저녁 준비하시는 것을 도와 드렸습니다.

저녁 설것이를 마친 후 어머니는 커다란 무화과 잎이 그려져 있는 길 긴 갈색 천조각을 찾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푸른 선을 수놓는 법과 들레에 브랭킷스티치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에 맞붙이는 조각은 툽밥을 넣을 구멍만을 남기고

앞 친과 함께 박았읍니다. 그리고 신전의 톱밥을 넣은 후 새지 않도록 구멍을 막고 단단히 껴맸읍니다. 다 완성된 후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난 자랑스럽게 바늘꽃이를 아버지께 보여 드렸읍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다른 것들과 함께 어머니의 반질고리에 넣어 두었읍니다.

수년이 지난 후 어머니는 갓난 손자를 돌보기 위해 아이다호로 가셨으므로 나는 집에서 요리와 가사를 보살펴야 했읍니다. 헬만은 누아동생인 애기와 버디가 나무 밑에서 같이 놀고 있을 동안엔 아버지를 도와 바깥 잔일을 해야 했읍니다. 어느 날 아침, 난 어머니가 손수 만든 동생 옷이 다 낡은 것을 보고 아버지께 동생의 옷을 만들 옷감을 사게 25센트를 달라고 했읍니다. 맥 매스터 상점에서 아주 예쁜 분홍빛 무명을 한 갑 샀읍니다. 마루에 퍼 놓고 낡은 동생의 옷을 전본으로 삼아, 만 들어 놓은 바늘꽃이에서 핀을 꺼내 본을 뗐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재단하여 옷을 예쁘게 지었읍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동생이 꼭 장미꽃 송이 같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난 양장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의 옷을 내 손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읍니다. 얼마 후 내가 어렸을 적 소꿉 친구였던 조디가 구혼을 해 왔읍니다. 어느 날 신전 톱밥을 넣은 바늘꽃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신전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거의 40년간의 공사에도 불구하고 솔트레이크 신전은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채였읍니다. 그래서 조디의 아버님께서 로간으로 가는 기차표를 우리에게 선물해서 우리가 신전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읍니다. 청명한 유월 어느 아침에 우린 로간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전의 톱밥으로 만든 바늘꽃이도 함께 여행하여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까지 돌아왔읍니다. 그 바늘꽃이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늘 함께 있었읍니다. 이제 그것은 나의 여덟 자녀에게 신전은 성스러운 곳이며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읍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읍니다. 정말 “신전의 톱밥으로 만든 바늘꽃이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읍니다. *

동계 농촌 봉사 활동

서울 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에서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을 이룩한 농민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40명의 젊은 형제 자매들로 농촌 봉사대를 조직하여 지난 2월 1일에서 3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제천군 봉양면 학산리에서 봉사 활동을 가졌다.

이들은 낮에는 취락답이 된, 논, 논밭 개량을 위한 객토 작업, 생활 개선을 위한 부녀 교실,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학년별 학습 지도 및 진학 진로 지도와 의료 진료 등을 했으며, 저녁에는 마을 공회당에서 선교 영화 및 교육 영화 여러 편을 상영하고 또 정성들어 준비해 간 "육혈포강도"라는 제목의 신파 연극도 공연하여 공회당을 메운 주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특히 혹심한 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한 들판의 객토 작업은 농민들의 노고를 땀 흘리며 일하는 중에 직접 느껴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으며, 부녀 교실에서는 건강 위생 교육 선교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가정의 밤"을 실지로 시범 보이고



목적지로 향한 봉사대원들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가계부를 구해서 한 권씩 나누어 주고 가계부 작성을 지도해 온 마을 주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물몬경, 교리와 성약, 성경 등의 표준 경전과 찬송가, 가정의 밤 교재 등 많은 교회 서적을 준비해 갖고 또 봉사대원 각자가 지참해 간 문학 서적 참고서들을 모아 "새마을 문고"를 설치하여 주기도 했다.

봉사대원들이 일하는 기간 중에는 제천 군수와 경찰서장 및 담당 군청 공무원들이 찾아와 관심을 보여주었고 봉양 면장과 면 직원과 경찰관들도 여러번 찾아와 격려해 주어서 국민 일체의 훈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다.

땀뿜던 땅을 곡괭이로

땀흘리며 삽질하는 모습

시식도 손수 하고



여수지부 민속 놀이의 밤

여수지부는 2월 7일 구정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민속 놀이의 밤을 가졌다.

5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이날 모임은 일부와 이부로 나뉘어서 진행했다. 일부에서는 성곽놀이, 팔씨름, 땅뺨기, 고리 끼우기, 투호, 제기 차기, 활쏘기, 윷놀이 등 민속 놀이를 가졌고 이부에서는 외국인 선교사 한국 민속 노래 자랑 등을 가졌다.

이날은 많은 성도가 한국의 고유 복장을 착용하고 모임에 임하여 구정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구어 주었다.

이날 모임에서 장 용택 지부장은 영적인 모임을 통해 “우리 조상의 얼을 고유 민속을 통해 느끼고 올바르게 조상을 이해하는 바탕을 삼아 계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자”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구도자에게는 “회복된 진리”라는 책자가 선물로 전달되어 회복된 복음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다.

약을 처방해 주며 복음도 전하는 의사

부산 선교부 산하 부산 지방부 평의원으로 봉사하는 김 정한 형제는 현재 부산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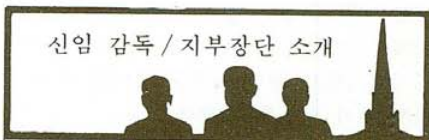
그는 성실하고 헌신적이며 굳건한 간증을 지닌 선교사의 인품에 크게 감명을 받아 개종한 후 복음 전도를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다.

그는 병원을 선교센터로 삼아 물론경과 교회 소책자를 비치해 두고 처방을 할 때 이러한 것들도 함께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김 형제는 한국에서 선교 사업이 좀더 잘

교회 연차 대회

4월 1~2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제148연차 대회가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스테이크 이 호남 부장과 서울 서 스테이크 김 창선 부장이 참석한다.



서울 서 스테이크

제9와드

감 독 : 홍 무광
제1보좌 : 양 해운
제2보좌 : 박 중식

서울 스테이크

상계지부

지 부 장 : 김 병희
제1보좌 : 김 학중
제2보좌 : 박 회원

진척되도록 돕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 주고 있으며, 무료 진료소를 마련하여 부산의 불우한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어 주고 있다.

김 형제는 그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회장, 지방부 평의원 등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봉사하고 있다.

김 형제는 진료 시간이나 여가 시간 등을 많이 희생하고 있지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특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슈라이너 형제 은퇴

1924년 4월 7일에 태버나클 울겐 연주자로 임명되어 53년간 봉사해 온 알렉산더 슈라이너 박사가 지난 12월 31일에 은퇴하였다.

1867년에 태버나클이 헌납된 이래 물론 태버나클 파이프 울겐 연주자 중 가장 오랫동안 봉사한 그는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연주자이다. 1929년 이래 지금까지 시 비 에스 방송망을 통해 세계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그의 연주 방송 프로는 미국 방송 사상 최장수 프로가 되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유진 울만디는 슈라이너 박사를 엘버트 슈바이처와 피블로 카잘스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음악가라고 일컬은 적이 있다.

슈라이너 박사는 미국내의 각 주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연주하였고 일곱 권이나 되는 울겐 반주집을 작곡하여 출판한 것 중 세 권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반주자를 위하여 특별히 만든 것이다. 몇 년 전에 태버나클 수석 울겐 연주자라는 칭호가 슈라이너 박사에게 주어졌다.

1901년 7월 31일, 독일 뉴른베르크에서 태어난 슈라이너 박사는 8살 때 교회의 반주자가 되었고 가족을 떠나 유타주로 이주한 후 다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교회 반주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의 감명적인 연주와 천부의 재능을 인정받아 그는 존 제이 맥클란의 문하생이 되었고, 솔트레이크 시티 웨스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성영화 시대인 그 당시 극장 반주자로 취직하여 1918~1925년 동안 일하여 번 돈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로 2년 반 동안 봉사한

후 유럽으로 건너가 정통적인 울겐 공부를 계속하였다.

1954년 그는 “울겐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과 소리 물리학에 대한 연구로 유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7년에 결혼한 아내 마가렛 자매와 사이에는 두 아들과 두 딸과 열 두 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다.

일문 유치원 졸업식

지난 2월 11일 서울 스테이크 제1와드 부속 일문 유치원은 1와드 강당에서 제11회 졸업식을 가졌다.

30명의 원아가 졸업한 이날 졸업식에는 서울 스테이크 부장이 이 호남 형제가 참석하여 식을 주관하였다.

이날 졸업식에서 황 근육 원장은 참다운 한국인이 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였고, 이어서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은 인간은 성스러운 출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교육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다운 인격을 소유한 인간으로 성장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일문 유치원은 지난 11년 동안 27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1977년 12월부터 1학급 증설하여 2학급으로 확장되었다.

일문 유치원 11회 졸업생 일문



간증의 문을 열자

데오 이 맥킨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가장 인상적인 교훈 중의 하나는 브리감 영 대학 재학시에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어느 아름다운 자매로부터 받은 교훈입니다.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지닌 지식이라든가 영적 능력은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재차 전화 번호를 물어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아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교과서를 한번만 읽어 주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학급에서 최고점을 획득하곤 했습니다.

나는 매학기 초에 그녀와 그녀를 안내하는 길잡이 개를 데리고 새로운 강의실로 가주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음 생활면에 있어서도 역시 남다른 메가 있었습니다. 한 번 가르쳐 주면 결코 잊지 않고 충실히 그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준 교훈은 열려진 문과 닫혀진 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심코 반쯤 열어 놓은 채 둔 문 때문에 곤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청각은 매우 예민해서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반사해 오는 소리만 듣고도 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반쯤 열어 놓은 문은, 그것이 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계속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태만에서 오는 실패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가 선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악에 대해서는 문을 굳게 닫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키리라”(요한계시록 3 : 15~16)

먼저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의 주된 목적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목표는 어떻게 많은 진

리를 배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미 알고 이해한 진리에 따라 생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불신앙에 대해 꾸짖으시고, 또한 그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아시아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요한계시록 3 : 7-8, 10)

배우는 자도 역시 책임이 있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이 완전해지려면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고 그 자신의 삶에 복음의 원리를 적용시키라고 권고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복음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안 받아들인 그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진리의 원칙을 배우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과 경전을 탐구하며 성령에 의하여 이러한 복음 원리의 진실성을 알게 된 자들은, 이러한 원리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과정이 완전해지면 이와 같은 단계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도표 “교사/학생의 관계 참조, 성도의

벗, 1977년 4월호 28페이지)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모로 7 : 19참조) 있기 전까지는 배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택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5)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택하라’는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라는 말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시기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임을 뜻하며, 내일은 없는 것이며 오직 오늘뿐임을 의미하며, 만일 내일 택한다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섬길 자’는 여러분이 섬길 하나님을 뜻하며, 섬긴다는 말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말로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고 봉사함을 뜻합니다.”(처치 뉴스, 1963년 6월 8일, 13페이지)

때때로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에 부패와 악이 만연함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상에 복음이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복음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주민과 특별히 교회의 회원들에게, 교회의 대관장단과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우리 시대의 여

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대관장단으로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은 주가 다시 지상에 오신다면 하실 그러한 말씀이십니다...교리와 성약 그리고 다른 모든 경전에 써어 있는 계시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신 말씀도 연구되고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진리와 오류가 공존하는 갈등의 시기입니다. 여기 진리와 오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매리온 지 롬니, 대회보고, 1945년 4월, 90-91 페이지)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음

복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임무는 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뜻 깊은 적용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는 보다 훌륭한 일을 행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현실 세계의 문제와는 연관성이 있으며, 복음에는 인간 문제의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음을 젊은이들이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1970년 여름, 브리검 영 대학에서 신학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교사들에게 행한 말씀, “인생의 제문제에 해답을 주는 복음 참조)

행함이 곧 앎

부지런히 복음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에 좌우됩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이것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이 지상에서 두

개의 대립되는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인간을 생명에의 길로 가도록 영감을 주고 탄원하고 권고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탄의 세력은 인간이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믿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전부를 얻거나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명백히 인간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세력에서 헤어나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 중 양자 택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어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대회보고, 1962년 10월, 94 페이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주님의 초대장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 날에도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요한계시록 3 : 19~22)

계시자 요한은 위와 같이 기록한 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요한계시록 4 : 1)

우리들 개인에게 이같이 하늘에 열려진 문이 있다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복음

닐 에이 맥스웰 장로

(1970년 여름, 브리감 영 대학교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직원에게 행한 말씀에서 발췌함.)

나는 평소에 생각하던 교회의 젊은이 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뛰어난 젊은 엘리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트란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책임을 맡으며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며 복음이 진실함을 믿으며 이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또 어렵고 힘든 선택도 하게 되는 젊은이들이라는 뜻에서의 엘리트를 말합니다. 그들은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행하고자 하는 폐기에 차있읍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이 범주에 속한다고는 말할 수 없읍니다. 아직은 복음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감수성이 강한 활동적이고 지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배사에 반대하며 따르

지 않으며 이탈해 나가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엘리트로부터 불평 불만을 일삼으며 이탈해 나가려는 무리에 이르기까지 교회에는 여러 계층의 젊은이들이 두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겠읍니다.

관계의 중요성

첫째로, 복음과 현실 문제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복음은 인생의 제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깨닫도록 돕는 일을 부모이고 교사인 우리들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다 더욱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해져야 하는 것임을 청소년들이 깨닫게 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관계”라는 말은 아직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더구나, 인생의 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복음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또 더욱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중재자가 되어야 함

교회의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직면하는 모순 중의 하나는 경전을 통해서 또 현대의 예언자들로부터 지상에서 평화가 사라질 날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지만 반면에 바로 그 경전과 예언자로부터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위한 중재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말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관점을 청소년들은 염두에 두어야 하며, 우리의 시대에 다시 평화가 오지 않겠지만 평화를 위한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세상을 주의 깊게 살피며 볼 수 있도록 생활 양식이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의 성인들이 하는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일 중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 그것은 현대의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니스웨에 탁월 재난을 예언한 후 언덕 위로 도망가 큰 구경거리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구원 보다는 재난에 더 큰 투자를 한 요나의 한 생활 양식 때문에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면서도 엄하게 꾸짖으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청소년들은 임박한 재난을 알고 있을찌라도 최선을 다하여 니스웨에서 생활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들은 구원될 때까지는 결코 말은 위치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됩니다. 우리도 역시 자기 위치를 고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향락에 빠질 수는 없읍니다. 향락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스테이크는 재난을 당하게 되며, 그럴 경우 재난이 생기기를 거의 원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리하이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아버지 리하이는 두 아들과 원만히 지낼 수 없을지도 모르리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지만 결국 그는 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훈계하고 봉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하며 니스웨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한 것처럼 다시 서로 도망가려 하다가 꾸중을 듣게 되어서는 안되었읍니다.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 재난이 탁월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되었읍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임무를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을 교회의 청소년들이 본다면 그들은 보다 쉽게 자기들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어날 일에 대하여 몰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조급히 산기슭으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힘

와싱턴에 있는 나의 한 친구가 몇 달 전에

집에 돌아 왔을 때 마침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는 강도와 싸우다가 잘못하여 강도가 쓴 총에 척추를 다쳤읍니다. 척추를 너무나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하반신을 못쓰게 되었읍니다. 그는 대단히 몸이 건강하고 정력적이며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은 비참하게 변모해 버렸읍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난 조금 후에 병원에 입원한 그를 찾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위로를 해 주려고 했읍니다만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가해자를 용서하였고, 아무런 원한도 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읍니다. 또한 그는 그렇게 비통해 하지도 않았고 담담할 뿐이라고 말하였읍니다. 단지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영원한 형제애를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제애란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그 말이 교회 밖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추측하지 않도록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하고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이야기할 때,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생명력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며, 인간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며 돌보지도 않고 심판도 하지 않는 친절한 할아버지라고 말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필요한 경우, 우리에게 혹심한 인생의 시련을 겪게 하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독생자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우리의 승리와 배움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들 주위의 관념과 비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배움의 네 가지 형태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서로 다른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다 필요한 것이고 적절한 것이며 서로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배움의 네 가지 형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 형태는 **훈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훈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태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설명도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형태는 **모범**입니다. 모범을 보여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권위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비례는 경험**입니다. 가정에서, 주일학교에서 신학원 구원에서 우리는 마지막 두 가지 즉 모범과 경험에 대해서는 별로 몇몇하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훈계와 설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배움의 네 가지 형태는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많은 모범을 보이고 많은 경험도 쌓아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픈 신권 청소년들이 그들이 해야 할 봉사는 일요일에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염려스럽습시다. 나는 청소년들이 의지할 데 없는 많은 외로운 미망인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레기통을 치워 주거나 눈을 치워 줌으로써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열매를 맛보며 복음이 진실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러 그들에게 말해 주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삼서를 다시 읽어 보시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대륙에 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다가와 “손을 주의 옆구리에 넣어 보며”,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증거하였”다는 구절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경험하였으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마서 32장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참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밖에 나간다는 핑계로 교회를 텅텅 비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얻는 경험도 복음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직접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축해 둔 양식이 나의 부을 꺼내 먹고 입듯이 청소년들도 경험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창고에 이러한 것들을 비축해 둘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 영적인 경험을 끄집어내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닥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창고는 거의 비어 있거나 전혀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지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끌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아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관대한 청소년들

또한 나는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임무는 청소년에게 보다는 부모들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오늘날 청소년들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동료들의 잘못을 마지못해 꾸짖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은 동료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반드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글썽요. 그것이 애매한 점이긴 하지만 대단히 심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욱 더 관대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동료들이 잘못을 범할 때 그들과 절교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무언의 찬성이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언의 찬성은 아닙니다. 그들은 흔히 찬성하지는 않지만 동료들을 만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로써 나도 나의 자녀들이 그들 주위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비난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나쁜 짓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동료들을 그만두도록 만류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우리들과는 달리 동료들의 행위에 대하여 의분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나쁜 짓을 용인하는 것으로 무턱대고 지폐 짐작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노래책과 같은 경전

끝으로 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경전을 읽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 내기를 바랍니다. 경전은 유익한 노래들이 실려 있는 노래책과 같은 것이지만 어른들인 우리는 좋아하는 노래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부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은 청소년들의 구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전은 노래책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르고 싶고 듣고 싶은 많은 곡들이 있으며,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것과는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만 찾아서 경전을 읽습니다. 정확하게 빈틈 없이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이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책을 펼쳐서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만 합니다. 노래책 즉 경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경전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노래를

들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 사항을 꼭 그대로 충족시켜 줄 방도가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몬경의 한 구절을 요즈음 유행하는 노래와 연결시켜 보고 말씀을 끝마칠까 합니다. 물몬경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나는 이말이 경전에 단 한 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시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영원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통찰력으로부터 분명히 우리들은 기쁨에 차고 넘치게 될 날이 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특정한 때에 여러분 자에게 힘든 일을 맡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간증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배움의

네 가지 형태는

훈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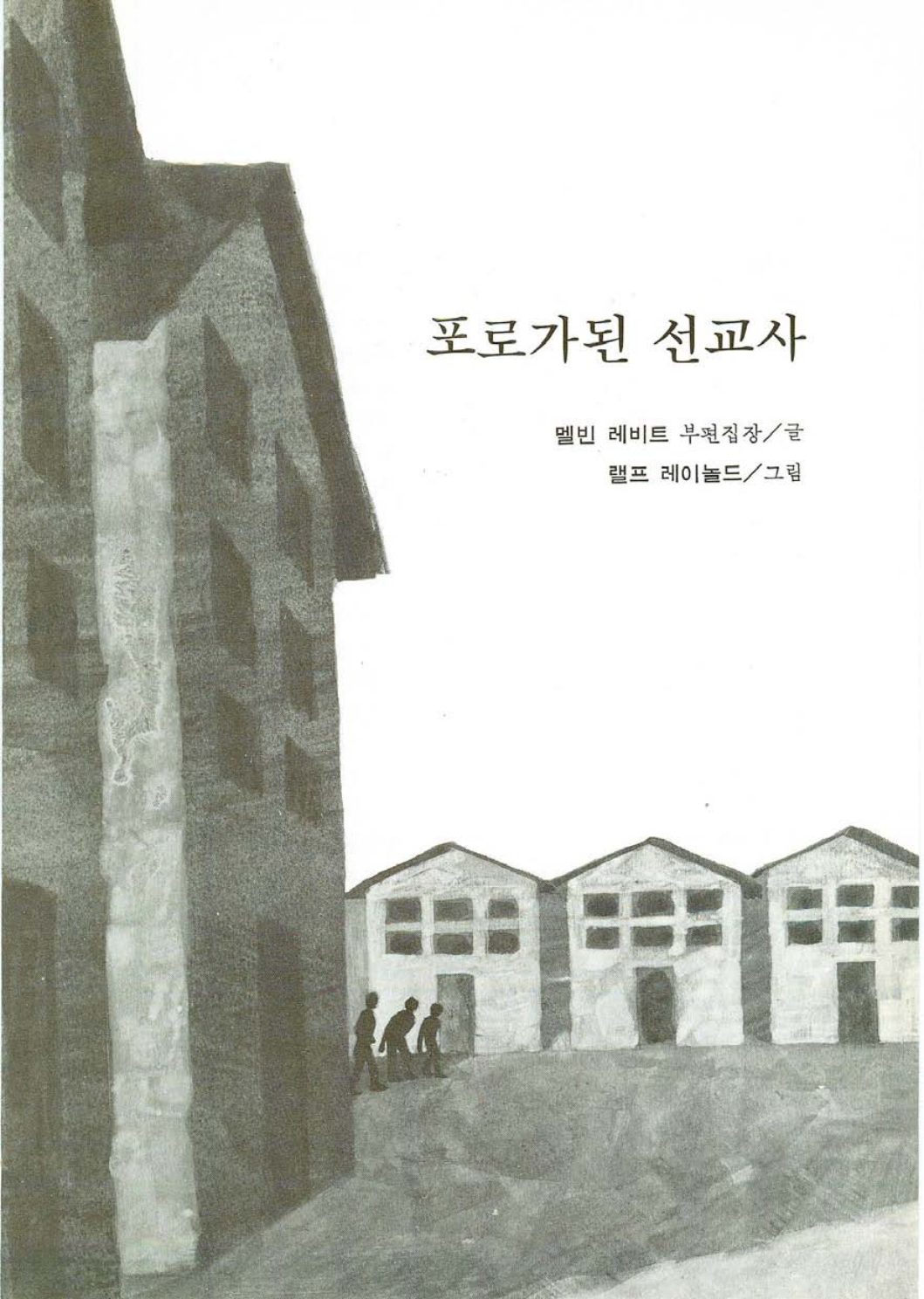
모범, 그리고

경험입니다.

포로가된 선교사

멜빈 레비트 부원집장 / 글

랄프 레이놀드 / 그림



1942년 5월 15일 피에트 빌람은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기차에 몸을 싣고 시골 길을 따라 부푼 가슴을 안고 독일 국경 지대에 있는 네델란드의 작은 도시 안헨을 향해 달렸다. 그는 선교부 제2보좌로 부름을 받고 부푼 가슴을 안고 떠나게 된 것이다. 전직 해군 장교로서 점령지인 홀란드에 근무했던 그는 다른 네델란드의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안헨에서 등록을 해야 했다.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있는 일어서 다소 번거롭기는 했지만 별로 신경쓸 일은 아니었다. 차창에 스쳐가는 바깥 경치를 보며 결코 이 하루의 여행이 3년간의 포로 생활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하였다.

안헨에서 네델란드의 장교들은 모두 독일로 호송되었다. 절망과 밤의 암흑을 통하여 랑바서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 가면서 피에트의 마음은 탐과 철책의 세계를 넘어서 다른 풀리지 않는 의문과 씨름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왜 그를 그곳의 선교부장단으로 부르셨으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좀처럼 가지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에트의 신앙은 강했다. 그는 진실로 해답을 꼭 얻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포로 생활이 후에 교회 선교사상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랑바서 수용소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어느 동료 포로 한 사람이 그에게 종교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것이 수용소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곧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듣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곳 간수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한테 모아 놓고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 주위를 다니며 한 번에 두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랑바서에서 수 개월 있는 후 피에트는 러시아와 폴란드 국경 지방에 있는 쉬타인스로우로 이송되었다. 여기서 그는 산보하면서 가르치는 일정표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열성적인 구도자들은 집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수용소 한 구석에 빈막사를 찾아내어 담요로 창문을 가리고 낡은 비누상자로 설교단을 만들어 몰래 집회를 가졌다. 간수들은 절대 이러한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아주 비밀리에 수행해야만 했다. 비록 이교도들이 좀 있긴 했지만 모임은 영으로 충만해 있었다. 간수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개회 찬송이나 폐회 찬송은 입을 수밖에 없었고 폐회

후에도 눈치채지 않도록 재빨리 한 번에 한 사람씩 막사를 빠져나가야 했다.

복음의 원리들이 철책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에서조차 엄격히 준수되었다. 금식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 배고픈 처지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죽 그릇을 나누어 주었다. 많은 사람이 여러 날 동안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복음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며 그는 자신이 얻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은 피에트에게 찾아와 주일날 모임을 위해 뭔가 조그만 봉사라도 하고 싶다고 겸손히 부탁했다. 피에트는 그에게 매 주일 마루 바닥을 청소하는 일을 하도록 부탁했고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사람들에게 상호 향사회에 관해 말했을 때 그들은 모두 그러한 모임을 갖기 원했다. 그래서 피에트는 상호 향사회를 조직하고 그들을 회장단, 서기, 교사로 불렀다. 그들은 그 모임에서 교리와 성약을 공부했다. 후에 피에트는 정식 회원이 아닌 자로서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가르치는 공과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수용소 주변을 걸으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

되었고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강해졌다. 그들은 신앙으로 그들이 받는 모든 고통을 이겨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피에트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게 되었으며 어느 부활절 아침 사람들은 손수 “신앙”이라는 제목의 찬송을 작곡 작사 해서 불러 피에트를 놀라게 했다. 후에 이 “신앙”이라는 찬송은 네델란드 선교부 찬송가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는 다시 독일의 노이 브란텐브르크로 이송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선교 활동은 계속하였다. 1945년 4월 28일 소련군이 진주해 들어옴에 따라 모두 석방이 되었으며 수 주일 후 피에트는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춥고 배고프고 빈대가 우글거리는 막사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은 그것을 귀중한 선물로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중에 일곱 사람이 후에 개종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았으며 그 중 한 사람은 나중에 최초의 네델란드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다.

아무도 피에트 빌람을 그의 임무로부터 격리시킬 수는 없었다. 그를 선교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그는 결코 그의 사명을 잊지 않고 훌륭히 수행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행한 일로 그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

인생이라는 경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자들의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나는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을 지라도 인생이라는 경주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에는 다소 우리보다 더 강하고 능력있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읽음으로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전 9:11) 또 경전에서는 끝까지 참을진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는 단거리나 100미터 경주나 중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는 마라톤 경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네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는 줄 알기 원하노라.”(교성 53:7) 만약 교리와 성약의 색인을 읽어 본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언급해 놓은 성구는 적어도 12개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는 때때로 갖게 되는 매우 어려운

경주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이 경주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10대에게조차도 경주란 그렇게 즐거운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이 고교 시절을 회상해 보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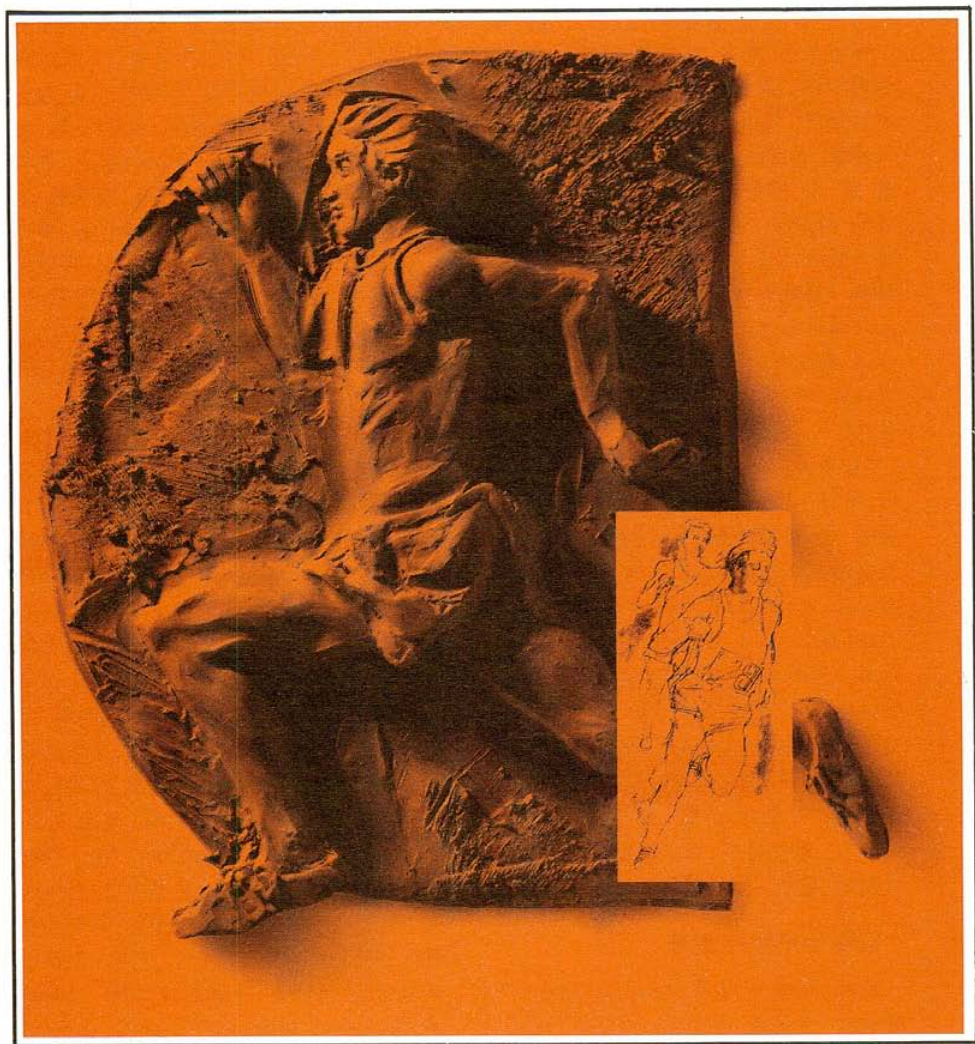
사람들은 대개 10대에 있었던 일을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고교 시절에 어려웠던 경험들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신이 너무 키가 작다가 너무 말랐기 때문에 또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운 때를 겪고 여러분보다 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시력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 할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고통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시련에서 어느 누구도 쉬운 경주를 하도록 약속받지는 않았읍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 대해 많이 언급한 히브리서에서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아들에게 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렸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

“-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윌리엄 지 다이어



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 12 : 1, 5-7)

그러므로 경주가 어려울 때 이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러한 인생이라는 경주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자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기는 너무 어렵고 장애물은 너무 힘겹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시험에 실패하고, 애인도 잃고 죄를 범하여 경주를 포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대학 구내 와드의 감독으로 있었을 때 나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회원이 있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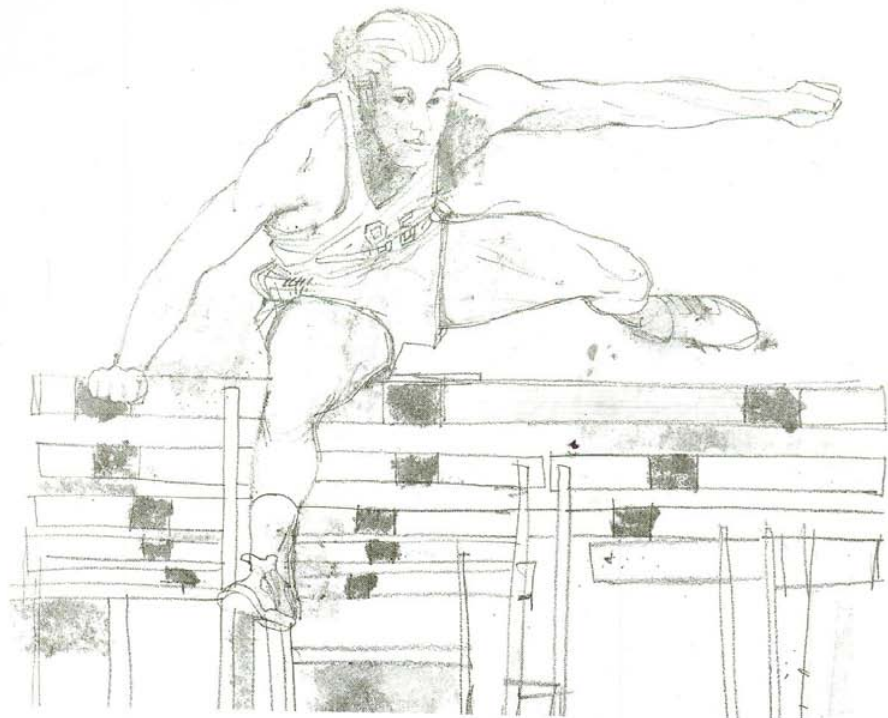
“감독님, 저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더 이상 어찌 할 도리가 없읍니다. 단념할 수 밖에 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적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사 1 : 18)라고 하신 말씀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새 목표를 세울 가능성 역시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너무 일찍 경주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 버리지 않는다면 재 출발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들을 포기한 자들이 있읍니

다. 그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부모나 형제 자매를 갖고 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런 자들은 너무 완고하고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다 틀렸다고 단정하며 또한 이미 경주는 끝났다고 속단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은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도 우리가 스스로 단념하고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주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주에 있어서 남들이 달리는 경주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주에서의 어려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깃세마네서 겪었던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 고통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찮은 고통도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됩니다. 시험과 시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시련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시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별로 남자 친구도 없고 그렇게 사교적이 아닌 자매에게는 실연이란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구혼자를 가진 자매는 다른 사람이 갖는 그러한 실연이나 어려운 경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



라건대 우리는 온정을 갖고, 남을 잘못 판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친절하게 대우하지 않고 온전히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가 약한 자를 도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라는 경주가 매우 즐겁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은 즐겁고 위대하며 인생은 아주 평온한 바다와 같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온화함에 대해 좀더 감사하고 겸손해 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독선적이거나 너무 자만에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만

일 우리가 우리의 생에서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손을 벌려 남을 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주에 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훈의 하나는 우리는 혼자서 달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며,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를 격려해주고 힘과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경주에서 여러분이 쉽게 앞서 달리게 될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가던 중에 내 후임으로 감독이 된 한 형제의 집 문 앞에 수십이 가득찬 여인이 서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얼마 동안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으나 내 동료는 외출하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뭔가 날 끄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죄송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민이 있어 보이는 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형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저의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외출하신 모양이에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매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하며 나는 내 사무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녀가 38세로 나의 먼 친척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친척임을 알자 비로소 슬픈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그녀가 그 당시 겪고 있는 절망과 자포자기와 좌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 노처녀였으며 장래에 대해 심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감독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척으로써 수개월 동안 그녀를 돕고 그녀와 함께 의논하고, 격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를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서 병석에 있는 어머니를 도울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절망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일에 다시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나는 그녀로부터 절려온 전화를 받았고 그녀가 얼마 전에 아내를 잃은 5명의 자녀를 가진

한 젊은이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배우자와 함께 인봉 의식을 받으러 신전에 왔을 때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5명의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지"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기독교인을 괴롭히기 위해 온갖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디모데 성도들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판재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6-8)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강하고 용감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남을 돕고 우리 자신에게 민감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민감하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를 간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보상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



김볼 대관장으로부터 받은 축복

곤경에 처할 때에는, 기도와 선행과 사랑으로써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2, 3주일 동안 매우 고심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여기서 그 내용을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게 있어서 그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전에 나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부로 초대되었고 교회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훌륭한 종교 단체로서, 전 세계에 350만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고, 온 인류를 위하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배출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물론 교회의 역대 대관장 중 두분을 알고 있었지만, 현 대관장을 만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현 대관장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님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가 끝날 때 나는 그가 매우 영적인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김볼 대관장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것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나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뒤로 다가와 그의 두 보좌와 함께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난 후 조용히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주님께 내 곁에 계시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매우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었고, 감동을 받았으며, 갑자기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대관장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여기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별을 고했고 그들과 헤어져 그날 아침 거리를 걸어가면서 나는 갑자기 나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꼈고, 내가 고심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명백히 알 수가 있었으며 승리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소리 높여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미국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인 노만 빈센트 필은 뉴욕주 뉴욕에 있는 마블 연합 교회의 목사이다. 본 기사는 1975년 3월 27일에 그가 행한 라디오 연설에서 발췌한 것으로 그의 승인을 얻어 게재한다.

